

# 페터 Zumthor 작품에 나타난 존재론적 공간개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Ontological Spatial Concept shown at Works of Peter Zumthor

**Author** 이옥재 Lee, Ok-Jae / 정회원,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겸임교수  
김문덕 Kim, Moon-Duck / 명예회장,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건축학 박사\*

**Abstract** With the modern society approaching, a lot of new paradigms have been created which can be explained by the existing space notions while suspicions on the true essence and existence of space have been raised. Ontology regards as the beginning the cause for a 'Field' which will be faced for the research of the essence of a space where 'being-in-the-world' exist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existing method of space construction in the spatial thinking and works of Peter Zumthor who mentioning ontological viewpoint as the physiological background of his works so that the ontological spatial concept may be clarified. The following is the study results.  
First, in order to construct the structures of his own designing into a 'Field' for experiencing the existential meaning, Zumthor chose a reductive pattern with the entire additional elements removed. The materials leading the subjects to call attention to memory and experience and the methods dealing with it enables the realization of various spatial essences.  
Second, the ontological event-system is required for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 among beings. He tried to create a spatial meaning by introducing external environment into the inside and using the materials reflecting regional features and phenomenological empiricism through the multisensory experience.  
Third, he applied assimilation/insert/adjustment/formative change as the way of constru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ite and structure.

**Keywords** 본질, 존재론, 장, 기억, 경험, 존재론적 사건, 대지  
Essence, Ontology, Field, Memory, Experience, Ontological Event, Sit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간에 관련된 개념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는 보편적 논제가 되었다. 근대 이후 공간에 대한 이론은 양식에 관한 논의에서 벗어나 철학, 물리학, 건축학, 지리학, 도시공학, 주거학, 교육학, 심리학, 정치학, 문화이론, 공간 예술론 등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시대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에 의해 공간의 보편성, 추상성, 순수성이라는 기존의 공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공간 패러다임이 양산되었으며 그 가운데 공간의 진정한 본질과 그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발현하게 되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탐구는 BC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형이상학적 관점이 크게 발전하였고 이로 인해 존재론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탈근대적인 공간 사유를 위하여 존재 개념에 대한 규명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공간 분야에서도 인식 대상에 대한 방법론의 하나로 존재론적 관점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sup>1)</sup>

이로 인하여 보편적인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근대적 사유에서 배제되었던 인간이 지닌 감각, 인지, 정서적인 측면이 '차이'에 비중을 두면서 개념적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현대 공간에서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공간 개념에 대한 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moonduck.kim@kku.ac.kr

1) 대표적인 현대건축가로 Louis Kahn, Alvaro Siza, Santiago Calatrava, Peter Zumthor, Steven Holl 등이 있다.

화 요구로 인해 존재개념의 변화도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간의 영향력이 문화적 전통에서부터 자연 현상에 이르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어질 스위스 건축가 페터 Zumthor(Peter Zumthor)는 자신의 저서들과 수많은 강연을 통하여 현학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활동의 철학적 배경으로 존재론적 관점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터 Zumthor의 공간적 사고와 작품들이 가지는 공간구성의 존재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작품에 나타난 존재론적 공간개념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공간인식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존재론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공간적 적용 및 표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유방식을 자신의 작품에서 풀어내고자 하였던 여러 건축가 가운데 페터 Zumthor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존재론적 관점 및 이에 따른 공간적 개념을 기존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페터 Zumthor의 작품에 나타난 존재론적 사유에 따른 공간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존재론적 사유방식에 대해 철학적, 공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페터 Zumthor의 공간사유와 그의 작품에서 의도한 존재론적 공간개념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유형화하였다.

4장에서는 존재론적 공간개념에 드러난 주요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간에 나타난 존재론적 표현특성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현대 공간에 나타난 존재론적 장소개념의 유의미성을 밝히고 공간적 표현 특성에 대해 도출해 보고자 한다.

## 2. 존재론적 공간론에 대한 일반적 고찰

### 2.1. 존재론적 공간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형이상학 또는 ‘제 1철학’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론(ontology)이라는 용어는 17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형이상학의 발전과 더불어 존재론은 현상학과 실존주의자들에 의하여 그 의미가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현상학자인 후설의 제자이며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하이데거는 탈근대적인 공간 사유를 위하여 존재 개념에 대한 규명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하이데거가 주장한 존재론적 공간론은 형이상학과 현상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존재를 현상이 일어나는 사건과 연관하여 사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이데거에게 있어 공간개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해된다.

인간과 공간의 상호관계성에 관한 담론들을 종합해 보면 ‘거주하기’는 인간에게 있어 경험세계이며 존재영역에 해당된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다른 존재자(사물, 도구)와 달리 ‘현존재(Dasein, Existence)’라 칭하였으며 이는 인간 자체가 존재(Sein, Being)를 드러내는 장(Da, here)이라 파악하였기 때문이다.<sup>2)</sup> 현존재는 실존이며 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다른 현존재의 존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가 규명된다.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부여된 것 간의 관계로 파악되며 이 과정에서 내적·외적 원인이 작용한다. 즉 하나의 독립된 존재자(사물, 도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어떻게 사용되며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상황적 맥락 안에서 존재한다.

이와 같이 현존재로서 인간이 다른 존재자(사물, 도구)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은 ‘세계-내-존재(In-der-Welt Sein, being-in-the-world)’로서 파악된다. 하이데거는 기계적이고 이분법적 공간이 아닌 ‘세계-내-존재’가 존재하는 공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존재자(사물, 도구)가 현존재(인간)와 만나게 되는 장에 대한 사유를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존재론적 장소개념은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적 장(장소), 이용자로서의 현존재(인간), 전달내용으로서의 관계적 의미와 사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이해되어진다.

### 2.2. 존재론적 공간론에 나타난 장소개념

#### (1) 실존적 ‘장(Da, here)’영역: 대지개념

하이데거는 대지의 의미를 인간의 거주하기를 통하여 구현하였다. 예술의 본질은 탈 은폐하려는 세계와 은폐하려는 대지 사이에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며 자연 자체는 물성이 가진 무게감, 색채 등은 인간의 체험을 통하지 않고는 감각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지는 몸담고 있는 민족의 역사적 흐름을 담은 다는 점에서 강한 장소성을 띠고 있다. 대지는 ‘존재의 중심으로서의 아궁이(herd)’로 묘사되는데 아궁이는 고향적 존재의 장소들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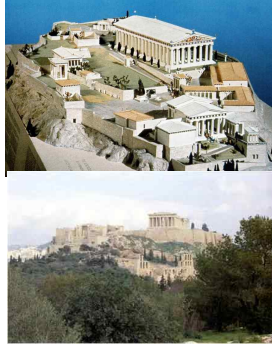
하이데거의 대지 개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지는 존재자를 존재하게 하는 은폐된 근거, 은폐하면서 간직하는 근거이다. 둘째, 대지는 한 민족의 시원적인 고향이란 의미를 갖는다. 셋째, 대지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높은 산과 숲의 대지이다. 넷째, 대지는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는 아궁이로서 대지이다. 다섯째, 대지는 사방세계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는 원의 형태를 갖는 대지이다.<sup>3)</sup>

2) 이수정, 하이데거-그의 물음들을 묻다, 생각의 나무, 2010, p.101

이와 같이 존재론적 의미를 내재한 '장'으로서의 공간은 3차원적 좌표에 의한 배치가 아니라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단에는 가장 신성한 장소인 신전을 축조하고 하단에는 상업·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의 장소 아고라를 축조하였다.



<그림 1> Acropolis, Athens, BC 480년경

신전은 자유로이 유동하며 엽매이지 않은 외부공간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조각적 조형물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그 크기나 비례에 있어서는 인간적 스케일에 맞추어 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 신전은 우주와 인간사이, 자연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통해 공간적 본질을 구축하였다.

(2) 존재론적 차이로서 '사이' 개념

시대 흐름에 따라 공간에 대한 절대적 입장은 상대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그로 인해 사이 또는 차이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이'라는 의미는 라틴어 접두어 inter·intra에서 유래하였으며 '사이에', '안에'를 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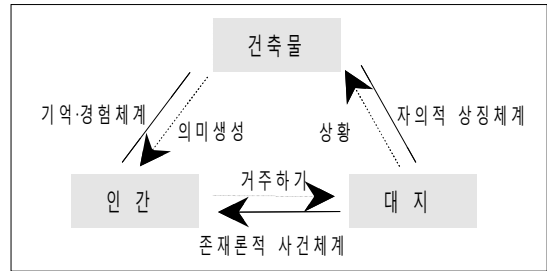
하이데거는 기술시대에 등장할 사이의 문화현상과 문제점을 예측하면서 이를 존재자와 존재 간에 생겨나는 '존재론적 차이'<sup>4)</sup>로서 사유해 나갔으며 후에 차이 개념은 '차이 짓고 지연시키다'라는 자크 데리다의 '차연 개념'(difference)으로 변용되었다.

사이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혹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 일정한 시간적 간격 등을 의미한다. 사이는 한자로는 간(間)으로 표기된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인간', '시간', '공간'이라고 표현되듯이 '사이, 간'이라는 말은 인간 존재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5)</sup>

사이의 사건으로부터 유래한다. 하이데거는 사이를 사건의 영역으로, 길(weg)은 공간의 장소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메타포로 정의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열린 세계가 체험되는 것을 사건개념으로서 정의하였다. 사건은 "어떤 것이 탈 은폐되어 존재의 진리가 발생하는 것"<sup>6)</sup>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술을 바라보는 태도가 단순히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발생하는 방식<sup>7)</sup>으로 이해하였다.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펼침으로부터 즉 세계와 사물의 내적인 상생의 존재방식으로 해명된다. 사이공간은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공간에 관계하는 인간의 존재방식을 규명하는 영역들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림 2> 존재론적 공간론에 나타난 장소개념

### 3. 존재론적 사유방식의 공간적 표현

#### 3.1. 페터 춤토르의 공간사유

앞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다른 존재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장으로서 인간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실존적 체험의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하이데거의 사유방식을 작품에 상당부분 받아들인 여러 건축가들 중 페터 춤토르는 수많은 강연과 저서를 통해 이를 밝히고 있다. 그는 1943년 스위스 바젤 태생으로 캐비닛 제작자의 아들로 자라면서 많은 재료에 대해 접하고 이해하였으며 그것을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 같은 경험은 재료의 물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하였으며 실제로 그의 작품에서 재료는 중심적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페터 춤토르는 재료를 건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고자 하였으며 그들 사이에 관계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전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역사적 유적지를 관리하는 쿠르 에이전시에서 일했던 경험은 그에게 스위스 고건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넓고 투박한 과거의 재료와 현대 공간이 만나는 새로움을 느끼게 하였다. 춤토르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장소의 형태와 역사의 일부가 되는 건축물을 원했으며 건축물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황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속성을 새 건물에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sup>8)</sup>

6) 이기상, 앞의 책, p.66

7) 진중권, 현대미학강의, 아트북스, 2003, p.66

3) 최상욱, 하이데거의 대지개념에 대하여, 하이데거 연구 16집, 1999, pp.205-239

4) M. Heidegger, Die Grundprobleme der Phanomenologie(SS. 1927) p.22

5) 이기상, 하이데거의 존재사건학, 서광사, p.388  
 '있음'은 '사이에 있음'이다. 이는 4가지 관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① 빗: 사이에 있다. ② 때: 머무르다, 경과하다, ③ 문(사물): 작용하다. 되다. ④ 하늘과 땅 사이에 있다: 나타나다. 생기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 3.2. 주체의 기억·경험체계

아담 샬르는 발스 스피에 대하여 하이데거의 거주개념을 공감각적 경험으로서 건축물에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실현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거주 개념을 공간에 심기 위하여 현상학적 경험과 삶, 대지의 맥락을 작품의 필수 과제로 삼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sup>9)</sup>

츄토르는 공간 형태의 접근 수단은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억들은 내가 아는 가장 심오한 건축적 경험이다. 기억은 작업을 할 때마다 참고하는 건축적 분위기와 이미지의 저장고이다.”<sup>10)</sup>라고 하였다.

공간에서 표현되는 기억은 개인에게만 유효할 수 없으며 개인적 경험인 동시에 집단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는 과거에 경험한 형태를 보편화하는 과정으로 경험을 보편적인 형태로 환원시키고자 하였다.<sup>11)</sup>

특정한 장소에 실존적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현존재로서 인간에게 주변 환경은 자신의 존재방식을 규명하는 하나의 ‘장’이며 인간은 자신만의 경험체계를 통하여 의미를 생성해 낸다.

츄토르는 경험체계를 통한 공간적 체험은 공간구성 원리를 넘어서는 감각을 재료에 붙여넣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였으며 따라서 재료의 가촉성, 냄새 그리고 청각의 심미적인 특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재료의 발견과 재료를 다루는 방법, 재료 자신의 존재를 결합하는 방법은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형태 창조를 제안하고자 함이다.<sup>12)</sup>

인간의 경험체계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써 환원화 된 형태로서의 간결성과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재료의 사용은 명확한 이미지를 전달하여 공간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형성한다.

츄토르 작품에 나타난 또 하나의 장치는 재료의 물성을 돋보이게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인지적인 경험을 체험하도록 하는 매개체로서의 빛이다. 빛은 츄토르의 작품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주의 깊게 사용되고 있으며 재료와 일체화되거나 둘러싼 장소와 일체화된 상태로 구현된다.

<표 1> 주체의 기억·경험체계

| 주체자    | 구성요소          | 표현적 특성   |
|--------|---------------|----------|
| 인간-건축물 | 환원화된 형태       | 간결성/ 명료성 |
|        |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재료 | 연계성/ 구축성 |
|        | 매개체로서의 빛      | 구축성/ 매개성 |

8) Peter Zumthor, Thinking Architecture, 나무생각, 2013, p.17  
 9) Adam Sharr, 건축과 철학: 하이데거, 장정제·송규만 공역, 시공사, 2010, p.118  
 10) Peter Zumthor, 앞의 책, p.8  
 11) 이명재, 페터 츄터 건축에서 나타난 건축의 존재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2호, 2009.06, p.40  
 12) Catherine Slessor, Material Witnesses-architecture and materials, Architectural Review May, 2000

### 3.3. 존재론적 사건체계

“인간과 장소의 관계, 장소와 공간의 관계는 그 안의 거주에 기반한다.”라는 하이데거의 거주 개념을 언급하면서 “장소와 공간에서의 생활과 사색에 대한 하이데거의 말로 볼 때 거주 개념은 건축가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체의 의미와 직결된다.”<sup>13)</sup>고 츄토르는 이야기하였다. 이는 건축물은 개인의 경험을 통한 장소적 각인을 통하여 비로소 실존적 의미를 획득한다는 하이데거적 거주개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존적 체험은 장소에 대해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주체의 지각적 체험이 공간성의 본질이며 사건이 발생할 때 실존적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sup>14)</sup>

사건이란 ‘뜻밖에 발생한 일’로써 고정되거나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라 생성적이고 유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츄토르는 1)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과 신체를 중심으로 한 가치(현상학적 체험), 2)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위하여 기후, 문화와 같은 지형적 요소(지역적 특수성), 3)시간적, 역사적 맥락성(시공간적 맥락성)을 통한 사건의 흐름을 통하여 실존적 체험을 부여하였다.

<표 2> 존재론적 사건체계

| 주체자   | 형성요소     | 내용                 |
|-------|----------|--------------------|
| 인간-대지 | 현상학적 체험  |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과 신체체험 |
|       | 지역적 특수성  | 기후, 문화와 같은 지형적 요소  |
|       | 시공간적 맥락성 | 시간적, 역사적 맥락성       |

### 3.4. 자의적 상징체계

대지의 범위 내에 삶의 영역을 정하고 흔적을 만드는 시작이 구축이라 불리는 작업이라면 그 시작은 대지에서 ‘터’를 만드는 작업이다. 즉 물질성이 땅에 담겨있는 모습은 대지의 장소성과 과거의 기억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이때 건축물은 역사적 또는 지형적 특성을 확정하고 강조하며 전달하는 일종의 통로가 된다.

츄토르는 건축물이 놓이는 장소로서의 대지와 이를 반영하는 공간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성을 구축하는데 있어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여준다.

- 1)건축물의 형태가 대지가 가진 조건에 의하여 ‘동화’되기도 한다.
- 2)지형적 특징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형태를 대지에 ‘삽입’하기도 한다.
- 3)때로는 지역적 재료를 통하여 동화하는 듯 보이나

13) Peter Zumthor, 앞의 책, p.36  
 14) 이미경, 사건과 건축공간의 관계성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2권 1호, 2013.2, p.136

형태적으로 강한 존재감을 형성하는 ‘조절’을 통하여 존재적 의미를 구현하기도 한다.

4)대지를 단순히 건축물의 배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형적 ‘변형’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건축물의 형태와 재료의 상호관계는 구축되는 대지와 관계방식을 토대로 나타난다.

#### 4. 페터 줌토르 작품에 나타난 존재론적 공간 표현특성

3장에서는 존재론적 관점을 통하여 줌토르의 작품에 나타난 공간 구현방법을 주체의 기억·경험체계, 존재론적 사건체계, 자의적 상징체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도출된 세 가지의 체계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의 작품에 드러난 공간적 표현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분석은 그의 작품들 가운데 존재론적 관점을 드러낸 작품이나 본인 또는 비평가들의 언급을 참고하여 선별하였으며 Zumthor Atelier(1986)부터 Steilneset Memorial (2011)까지 총 6개 프로젝트를 사례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3> 사례분석 대상

| NO | 작품명                       | 위치 및 연도                       |
|----|---------------------------|-------------------------------|
| 1  | Atelier Zumthor           | Graubunden, Switzerland/ 1986 |
| 2  | Therme Vals               | Graubunden, Switzerland/ 1996 |
| 3  | Swiss Pavillion Sound Box | Hannover, Germany/ 2000       |
| 4  | Bruder Klaus Field Chapel | Wachendorf, Germany/ 2007     |
| 5  | Kolumba Museum            | Koeln, Germany/ 2007          |
| 6  | Steilneset Memorial       | Vardo, Norway/ 2011           |

##### 4.1. Atelier Zumthor(1986)

스위스 그라우빈덴의 작은 시골마을에 위치한 줌토르 작업실은 1층은 정원에 면한 두 개의 방과 벽난로, 주방이 2층에는 개인작업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3> Atelier Zumthor, Graubunden,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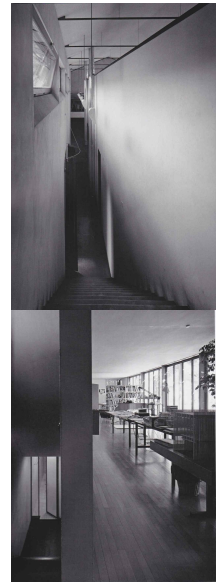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주 당국의 인허가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다 1986년 완공되었다. 줌토르는 성장과정에서 익숙하게 접해오던 목재 재료를 세밀한 구축 방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기억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재료들이 조화롭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이 들어설 특정 부지나 장소에 집중하여 그곳의 깊이, 형태, 역사, 감각적 특성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태 장소의 이미지들이 내 정밀한 관찰 과정에 끼여든다. 내가 아는 장소들,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장소들, 나에게 특정한 분위기나 특성을 주었던 일상적인 또는 특별한 장소들의 이미지이다.”<sup>15)</sup>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형태를 현대적 공간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줌토르는 간결한 형태를 선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널드 저드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다.

도널드 저드는 단일한 재료와 형태, 구성에 머물기 보다는 주어진 변수들을 재조정하며 작품을 둘러싼 주변맥락이나 공간을 고려한 작업을 추구하였다. 줌토르는 저드의 작업에서 받은 영감으로 최소한의 형태를 바탕으로 Matias Spescha의 페인팅이나 알바 알토 의자, 나무로 만들어진 구조물, 지붕에 놓인 붉은 타일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더해 자신과 가족들만의 공간을 구축하였다.

줌토르는 자신의 작업실을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을 주변 환경의 관계 내에 새로운 건축물을 짜 맞추어 넣는 (weaving) 첫 번째 프로젝트로 소개하였다.



<그림 4> 작업실 내부

##### 4.2. Therme Vals(1996)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은 온천수와 편마암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Therme Vals는 이 마을의 계곡 한쪽에 위치한 호텔의 부속시설로써 증축되었다.

Therme Vals의 매스는 대지의 형상과 어떠한 연계 없이 끼워 넣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에서 얻어진 외부의 편마암 켜는 장소적 맥락성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내부로 연결되는 경험을 가능케 한다.



<그림 5> Therme Vals, Graubunden, 1996

줌토르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돌과 물이라는 두 가지의 재료적 물성을 조화롭게 적용하려는 공간적 시도를 하였으며 동시에 스파 내에 온도 차에 의한 다양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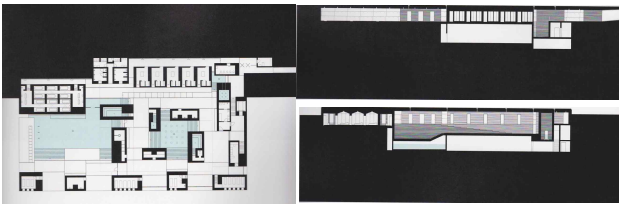
15) Peter Zumthor, 앞의 책, p.41

을 돕으로써 방문객들로 하여금 개인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탕은 붉은 계열의 조명을, 냉탕은 파란 계열의 조명을 계획하여 온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재료가 가지는 물성을 촉각적, 시각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온도와 상황에 따른 현상학적 체험은 빛이라는 매개체에 의해 더욱 다양해진다. 좁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자연광과 어두움, 그림자, 전면의 큰 창을 통해 유입되는 주변 환경의 여러 시퀀스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방문객들로 하여금 휴식과 치유를 경험하게 한다.

물과 돌이라는 재료의 연속적인 체험과 지역적 맥락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존재방식에 따라 온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간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경험하며 주체로서의 개인적이고 보편화된 기억을 전달받는다.



<그림 6> Thermo Vals 배치도/ 입면도

### 4.3. Swiss Pavillion Sound Box(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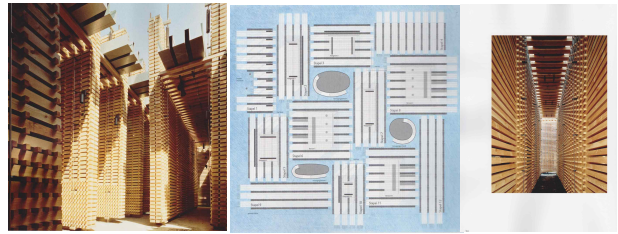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2000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엑스포에 지어진 스위스 홍보관이다. 이 공간을 설계하면서 요구 사항은 관람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최대한 조용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다. 소음이 많은 지역에서 조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건물은 비유과 재료에 따라 고요함 속에서도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sup>16)</sup>

츄토르는 스위스의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목재를 하노버로 옮겨와 3차원 격자구조를 사용하여 접합부 없이 단단하게 쌓아 파빌리온 구조물을 만들어냈다.

목재 재료는 관람객들에게 그 특유의 냄새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하며 관람하는 동안 시각적·후각적 체험을 통하여 공간을 인식하게끔 한다.

엑스포가 끝난 후 파빌리온 구조물은 쌓는 방법에 의해 구축된 덕분에 재료로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분해되어 공원의 벤치, 바닥재, 가구 등 다양하게 재사용되었다.

3차원 격자구조와 재료는 파빌리온이 오픈된 공간이지만 외부가 더울 때는 숲속처럼 시원하고 외부가 서늘할 때는 따뜻함을 전달해 주었다. 이러한 온도감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sup>17)</sup>



<그림 7> Swiss Pavillion Sound Box, Honover, 2000

파빌리온의 쌓인(stacking) 구조물은 마치 숲속의 미로를 거니는 듯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엑스포 기간 진행된 음악회 역시 500여명의 음악가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현상학적 경험을 통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공간의 본질을 깨닫는 휴식의 장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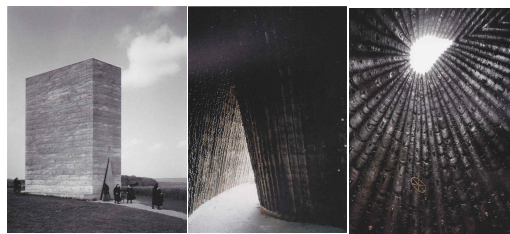
### 4.4. Bruder Klaus Field Chapel(2007)

이 예배당은 1417년부터 1487년까지 스위스에 살았던 클라우스 형제의 순교정신을 기념하고자 계획되었다. 츄토르는 예배당을 설계하면서 하이데거가 언급한 ‘다리’(bridge)개념을 떠올렸다.

“건축의 존재는 대지와 관계를 맺으며 인간이 주변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다리(bridge)를 대지에 뿌리내리고 스스로 지탱하면서 건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사람들 간의 관계 맺기를 유도하고 동시에 주변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sup>18)</sup>

예배당의 단순한 형태는 “poetry houses”(특정한 시상과 연관되도록 디자인된 개인적 공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존재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가 의도했던 외부에서 전달되는 간결한 형태는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강한 반전을 경험하게 된다.

예배당 내부는 112개의 나무줄기를 세운 뒤 24일 동안 콘크리트의 켄을 구조에 부어 굳혀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굳혀진 나무줄기들은 3주간 태워지고 그 결과 검고 거친 질감을 가진 재료가 만들어졌다.



<그림 8> Bruder Klaus Field Chapel, Wachendorf, 2007

관람객들은 순례자의 인도를 받으며 점진적으로 대지로부터 건축물로 접근하게 되며 거의 아무 것도 없는 좁은

16) Peter Zumthor, Atmospheres, 장택수 역, 나무생각, 2013, p.31

17) Peter Zumthor, 앞의 책, p.33

18) Adam Sharr, 건축과 철학: 하이데거, 장정제, 송규만 공역, 시공사, 2010, p.61

내부로 들어서면서 다양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길쭉한 통나무의 질감을 가진 그리고 기울어진 벽체로 형성된 공간은 내부로 유입된 빛에 의해 거친 질감이 극대화되면서 시각적·촉각적 경험을 유도한다.

천장과 출입구를 통해 유입되는 빛은 예배당이 가진 종교적 공간으로서의 분위기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배당의 매스는 평편한 대지 위에 하나의 오브제처럼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상징적 역할을 한다.

#### 4.5. Kolumba Museum(2007)



<그림 9> Kolumba Museum, Koeln, 2007

퀵른에 위치한 Kolumba Museum은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역사적인 교회 유적지와 미술관 자리에 세워졌다. 당시 현상설계에서 1등에 당선된 춤토르는 과거 Chur 로마유적지 전시보호관보다 적극적인 계획안을 내놓았다. Chur 로마유적지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유물이라는 과거의 대상을 현재의 공간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를 토대로 기존 퀵른대성당의 외벽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벽돌을 수직적으로 쌓는 중첩 기법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구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교회 유적지와 현재 뮤지엄의 벽돌에 구멍을 내면서 쌓는 방법으로 시간적 차이를 빛을 매개로 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간을 경험하는데 있어 벽돌, 몰탈, 석회석, 금속, 목재와 같은 익숙한 재료들을 사용하였다.

Kolumba Museum에서도 시공간적 맥락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다리(bridge)라는 공간적 장치가 나타난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표현하는 부유하는 다리 위에서 관람객들은 현재의 시간 위에서 과거의 시간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또한 11m 높이의 층고에서 벽돌 사이에 난 구멍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광은 관람객들의 시공간 교차에 따른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림 10> Kolumba Museum 시공간 중첩표현

도심에 위치한 Kolumba Museum의 매스는 주변 건물들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어 보도 블록을 따라 걷게 되면 뮤지엄의 출입구에 도달하게 된다.

관람객들은 시간에 따른 재료의 중첩, 부유하는 다리,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빛이 어우러지면서 공간을 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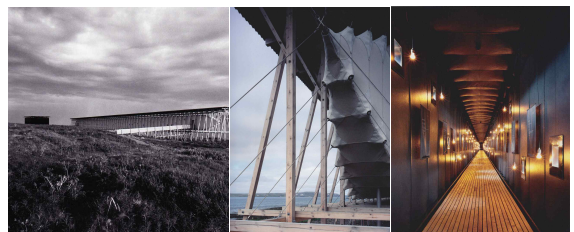
#### 4.6. Steilneset Memorial(2011)

Vardo는 노르웨이 북단 바렌즈해 끝단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나무조차 없는 황량한 대지로 이루어져 있다.

17세기 이 지역에는 마녀사냥이라는 벌미로 죄 없는 여자들이 살해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역사학자인 Liv Helene Willumsen이 발간한 저서 ‘The Witchcraft Trials in Finnmark Northern Norway’에 잘 나타나 있다. Steilneset Memorial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 미술가인 Louise Bourgeois와의 협업을 통해 세워졌다.

수평선과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 구조물은 부유하는 통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테플론 코팅을 한 유리섬유 천으로 만들어졌다. 페브릭이 가지는 유연한 특성은 목재 프레임에 감싸며 마녀사냥의 희생자를 기리는 91개의 창문과 텍스트를 여유 있게 둘러싸고 있다.

목재와 페브릭이라는 두 가지의 물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케이블에 의해 서로 얽히면서 전체로서의 면모를 전달한다.



<그림 11> Steilneset Memorial, Vardo, 2011

관람객은 목재로 만들어진 다리를 통하여 현재라는 시간성을 가진 외부공간으로부터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내부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내부공간에 놓인 일정치 않은 패널과 창문의 위치는 다양한 외부의 풍경을 전달하며 관람객은 풍경을 보기 위하여 지속적인 움직임을 유발한다.

내부에 놓인 긴 복도의 끝에는 설치 미술가인 Louise Bourgeois에 의해 조성된 영혼의 집이 배치되어 있다. 영혼의 집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스틸 체어의 불꽃으로 이를 상징한다.

기념물의 매스는 위치하고 있는 노르웨이 바다의 수평라인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대지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친숙한 느낌을 부여해 준다.

## 5. 결론

이상 페터 춰토프의 작품에 나타난 존재론적 공간 표현에 대하여 주체의 기억·경험체계, 존재론적 사건체계, 자의적 상징체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표 4> 주체의 기억·경험체계를 통한 분석

| 주체     | 환원화된 형태  | 독립적 존재로서 재료 물질   | 매개체로서의 빛  |
|--------|--|--|---|
| 인간-건축물 | 재료가 가진 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형태/ 둘러싼 대지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 대부분 건축물이 놓인 대지로부터 얻은 목재, 돌을 주된 재료로 사용하며 이를 구축하는 기법의 다양성을 통하여 본질적 의미를 구현하고자 함 | 구조화된 빛, 매개체로서의 빛 등 다양한 적용을 통하여 재료가 가진 질감과 주체의 현상학적 체험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작용 |

첫째, 춰토프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실존적 의미를 체험하는 ‘장’으로 구축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억을 담는 그릇으로서 일체의 부가적 요소를 제거한 환원적인 형태를 선택하였다. 더불어 주체로 하여금 기억과 경험을 환기시키도록 하는 재료와 이를 다루는 방식은 다양한 공간적 본질을 깨닫게 한다. 이 과정에서 빛은 재료와 인식을 다양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표 5> 존재론적 사건체계

| 주체    | 현상학적 체험                            | 지역적 특수성  | 시공간적 맥락성   |
|-------|------------------------------------|--|--|
| 인간-대지 | 재료와 가공기법으로 공간각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을 강조 | 대지적 속성을 담은 재료와 둘러싼 landscape를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건축물과 대지를 관계시킴 | 시간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들-계단, 복도, 다리 등-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는 맥락성이 사건체계로 사용 |

둘째, 인간과 대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적 거주개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사건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춰토프는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으로 재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온도, 소리, 촉감과 같은 공감각적 경험을 통한 현상학적 체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역으로부터 얻어진 재료를 사용하거나 외부환경을 내부공간으로 충분히 유입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공간적 의미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적과 같은 과거의 흔적을 현대공간에 담는 작업에 있어 춰토프는 주도면밀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이테거가 언급한 다리, 계단, 산책로를 연상시키는 복도 등을 자신의 작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대지-건축물 간의 관계성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동화/ 삽입/ 조절/ 조형적 변형 등이 사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 현대공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인식방법

의 하나로써 존재론적 관점의 공간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1. 강학순, 존재와 공간, 한길사, 2011
2. 이기상, 하이테거의 존재사건학, 서광사, 2003
3. 이수정, 하이테거-그의 물음들을 묻다, 생각의 나무, 2010
4. 진중권, 현대미학강의, 아트북스, 2003
5. Peter Zumthor, Thinking Architecture, 나무생각, 2013
6. Peter Zumthor, Atmospheres, 장택수 역, 나무생각, 2013
7. Adam Sharr, 건축과 철학: 하이테거, 장정제·송규만 공역, 시공사, 2010
8. Catherine Slessor, Material Witnesses-architecture and materials, Architectural Review May, 2000
9. 최상욱, 하이테거의 대지개념에 대하여, 하이테거 연구 16집, 1999
10. 이명재, 페터 춰터 건축에서 나타난 건축의 존재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2호, 2009.6
11. 이미경, 사건과 건축공간의 관계성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1호, 2013.2

[논문접수 : 2015. 02. 28]

[1차 심사 : 2015. 03. 17]

[게재확정 : 2015. 03. 20]